

##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187억 모금 전국 1위

행안부, 지난해 17개 시·도 879억원 모금...전년도보다 35% ↑  
광주 동구 23억 전국 기초단체 1위...광주시, 30억 증가 45억

전남도가 지난해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7억여원을 모금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광주시도 전년에 비해 30억여원이 늘었고, 특히 광주 동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23억여원을 모금하는 실적을 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제도 첫 시행 해인 2023년(650억6000만원)보다 228억7000만원(35%) 증가한 879억3000만원을 모금했다. 모금 건수(52만6000건)도 47.1% 늘어 77만4000만건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광주시가 45억3000만원으로 2023년(15억2000만원)보다 30억1000만원 늘었다. 특히 전남도는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87억 5000만원을 기부받는 성과를 냈다. 경북(103억 9000만원), 전북(93억2000만원) 등이 전남도의 뒤를 이었다.

전국 상위 10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광주시 동구가 23억9500만원으로 모금액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년도 1위였던 담양군(23억20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영암군(18억7000만원), 무안군(15억5700만원), 충남 논산시(14억1800만원), 경북 영덕군(11억8000만원), 전북 정읍시(10억 8600만원), 경북 예천군(10억5300만원), 곡성군(10억4600만원) 등이었다.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들이 모금 상위 10개 지자체 중 5개를 휩쓴 것이다.

특히 광주시 동구는 지역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순위에 올라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린다. 동구는 발달장애 청소년 'E.T 야구단' 지원 사업, 100년 된 광주극장 시설 개선 사업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곳에 지정 기부금을 접목하고, 인근 상인과 협업해 지역에 특화된 답례품을 다수 발굴한 점 등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던 무안군은 지난해 12월 30~31일 이틀 동안 전년도 모금액(약 5억원)의 2배가 넘는 11억원이 모이기도 했다. 무안군은 해당 기부금을 피해 가족 지원사업 등 재난 극복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가 포함돼



고향사랑 기부금  
전국 상위 기초 지자체

순위	지자체	모금액
1	광주시 동구	23억9500만원
2	전남 담양군	23억 200만원
3	전남 영암군	18억 700만원
4	전남 무안군	15억5700만원
5	충남 논산시	14억1800만원
6	경북 영덕군	11억 800만원
7	전북 정읍시	10억8600만원
8	경북 예천군	10억5300만원
9	전남 곡성군	10억4600만원

있는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4억7000만원으로 비(非) 인구감소지역(137개) 모금액(2억7000만원)의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인구소멸 위기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태어난 지역이나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준다. 기부 상한액은 작년까지 개인당 최대 500만원이었지만 올해 2000만원으로 올랐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 제공되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를 지나며 제도 시행 취지인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군의 모금액이 급증한 사례처럼,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단순한 모금 제도를 넘어서 지역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창구 역할까지도 수행해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전남 산업 현장 지게차 사고 많다 ▶6면

'빛의 팀' 광주FC, 더 빨라진다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경북 '경산 5경' ▶22면



광주 농수산물시장의 '설 대목'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시 서구 풍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에 사과와 배 등 대표적인 설 선물 과일 상자들이 쌓여 있다. 광주지역 사과와 배 소매가는 정부의 가격 안정 대책으로 최근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각각 9.6%, 29.9%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공항·여수공항 '로컬라이저 둔덕' 없앤다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 부러지기 쉽게 재설치

국토부, 공항시설 개선방안 발표  
흑산공항엔 특수 제동 장치 설치

정부가 광주·여수공항에서 방위각 시설인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을 없애기로 했다. 흑산공항 등 지형 제약으로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공항에는 특수 제동장치도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로컬라이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위험시설로 지목되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전국 13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등 항행안전시설의 위치, 재질 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번 방안은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국토부는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활주로 근처에 '위험한 시설물'이 발견된 전국 7개 공항에 대

해 안전 개선에 나선다.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 국내의 권고 기준보다 짧은 경우 늘리거나 항공기 제동 효과를 내는 특수 시설 도입을 검토한다.

광주공항의 경우 둔덕의 높이가 낮은 수준(0.7m)으로 확인돼 흙을 더 쌓아 활주로와 수평을 이루게 한다. 광주공항의 안전 구역은 권고 수준인 240m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여수공항의 경우 둔덕의 높이가 활주로보다 4m 높아 기존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을 재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구역도 208m로 권고수준(240m)에 미달해 부지내에서 추가 확보를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무안공항에서는 기존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 시설을 재설치한다. 안전구역도 200m여서 권고수준에 미치지 못해 공항 부지내에서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방위각 시설 개선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경우 올해 상반기 내, 늦더라도 연내 마무리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현재 기본계획 수립 또는 설계 단계인 흑산도 신공항 등 7개 공항에서도 항공기 비상 착륙 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흑산공항은 울릉·백령공항과 함께 지형 등의 여건으로 안전 구역을 240m까지 확보하기 곤란해 대안으로 EMAS(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제동시스템, 항공기 이탈시 바다 시멘트 블록이 부서져 제동시키는 원리)를 설계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내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항공사의 안전 운항 개선 방안까지 담은 전반적인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은 4월까지 세울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당신 곁에  
GWANGJU  
더 단단한 민주주의 더 따뜻한 민생경제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